



세월호 참사 해역에 헌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맹곡수도에서 열린 선상추모식 중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세월호 유족이 국화를 사그 해역으로 던지고 있다.

광주 ‘관광 핫플레이스’로 떠오른다

한국관광공사 ‘2025 기대되는 도시’에 선정 ‘한강 소설’ 배경지·기아타이거즈 구장 인기

광주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 관광 데이터랩’의 빅데이터로 알아본 ‘2025년 기대되는 도시’에 선정돼 침체한 지역 관광산업 날갯짓이 기대된다.

16일 한국 관광 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기대되는 도시는 전라권에서 광주시, 전북 전주시·군산시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은 ‘이동통신 데이터 분석’, ‘2023년 대비 2024년 외국인 방문자 증가율이 높은 지자체’를 평가한 결과로, 광주시를 2025 기대되는 도시 ‘최애 여행지’로 추천했다.

관광공사는 한강 작가 소설 ‘소년

이 온다’의 배경지로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노벨문학상 기념 투어’ 장소로 떠오른 것과 야구팬들이 ‘직관’을 위해 찾은 도시라는 점을 선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광주시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전국의 문학 팬들을 위한 소설 ‘소년의 길’ 투어를 제안하고 있다.

투어 첫 번째 추천 장소는 ‘5월의 기록을 만나는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다.

이곳은 흩어져 있던 5·18 기록물을 모은 기록관으로 네 개의 상설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기록물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됐다.

두 번째 장소는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전일빌딩245로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던 금남로 1가 1번지에 위치한 건물이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가해졌던 곳으로 245개의 탄흔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추천 방문지는 ‘전통과 현대적 미를 갖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이곳은 옛 전남도청 자리에 지어진 복합 문화예술공간이다.

다양한 전시·공연이 연중 열리는 공간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 가이드북에 소개될 만큼 건축미가 뛰어난 곳으로 꼽힌다.

여기에 광주를 ‘최애 여행지’로 소개한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는 올해도 전국의 야구팬들이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많은 방문이 예상

된다.

야구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2024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거머쥔 기아타이거즈는 올해 130만 관중 돌파라는 목표에 도전한다.

‘야구공 빵’을 판매하는 경기장 내 ‘인크커피’는 챔피언 탄생 구장의 직관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번 시즌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문명성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도 문화·예술·관광산업을 특화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5일 올해를 ‘광주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생가 일대를 인문학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 연중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는 관광 인프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세월호 참사 11년 “고통 없는 안전사회로”

세월호 임시 거처 목포신항만서 기억식 열려

“청년, 자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전남 목포신항만에 거처된 세월호 선체 앞에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지역 공동 실천회는 이날 오후 전남 목포시 신항만 내 선체 거처 장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을 열었다.

이날 기억식에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전남도교육청, 목포중고학생연합회 관계자 등 230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묵념, 기억사, 추모사, 기억영상, 추모 공연, 연대사, 추모시 낭송, 선언문 낭독, 헌화, 세월호 기억과 치유의 춤 퍼포먼스,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거대한 세월호 선체 앞에서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소프라노 추모곡과 천개의 바람 연주가 울려 퍼졌다.

단원고 희생자 고(故) 이호진 군의

어머니 김성하씨는 먼저 떠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으로만 남은 그리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김씨는 “호진아, 네가 태어나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벅쳐. 그런 네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11년이 됐네”라며 “나중에 만날 날까지 잘 있어야 해”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유족들은 짙은 녹슨 선체 앞에서 눈물 흘리거나 고개를 떨구며 애절한 심정을 드러냈다.

10·29이태원 참사 유족과 12·29제주항공 참사 유족도 자리에 함께해 자녀를 잃은 고통을 함께 나눴다. 이들도 미래 세대가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염원했다. 이종민 이태원 참사 유족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국가가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다”며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고 진상규명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호 기자

“반드시 정권교체”... 민주, 순회 경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공명선거 실현·투표 독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절차를 마감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기호순)는 16일 첫 순회 경선을 맞아 공명선거를 다짐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공명선거 실현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협약식에서 “희망이 있는 나라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반드시 누가 되든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평화도 다 위협스러운 상태”라며 “다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야 하는데 이번 선거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낮은 자세

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세 분의 민주당 정부 3기의 공과를 모두 안고 있는 계 민주당이다. 그런 경험과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 줄 수 있는 경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동연 후보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 큰 단합을 통해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천터미널 투자·협력 절실	2면
국힘 8명 1차 경선행	3면
안전자산 부동산보다 금	4면

